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5 OCTOBER_VoL.153

신입 삼정인 I 04

삼정KPMG의 새로운 미래, 2015 신입회계사를 소개합니다!

Market Reader 12

글로벌 화학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전략

生生之樂 20

삼정KPMG 야구 동호회

가자 세계로! 22

아빠까바르(Apa Kabar), 인도네시아!



CONTENTS

COVER STORY

당신이 바로 삼정KPMG의 미래입니다!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 삼정KPMG는 신입회계사를 새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삼정KPMG와 함께 고객의 성장과 사회의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힘쓸 인재들입니다.
열정과 패기로 나아갈 이들이 함께하기에, 삼정KPMG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정KPMG의 미래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삼정KPMG 안에서 웃고 즐기고, 배우며 성장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삼정KPMG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OCTOBER 2015

삼성KPMG 뉴스레터. 2015년 10월호(통권 제 153호) 월간

건강한 성장



[신입 삼정인 I 04](#)

삼성KPMG의 새로운 미래, 2015 신입회계사를 소개합니다!



[신입 삼정인 II 06](#)

신입회계사와 함께한 'Our Higher Purpose!'



[Team Spirit 08](#)

삼성KPMG Financial Service Tax본부



[Client+ 10](#)

에스엘



[Market Reader 12](#)

글로벌 화학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전략



[Excellence Report 14](#)

CEO COLUMN / TAX / KPMG Report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18](#)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행복충전소 19](#)

부모님을 뵙니다! Global Tax본부 박혜민 대리



[生生之樂 20](#)

삼성KPMG 야구 동호회



[가자 세계로! 22](#)

아빠까바르(Apa Kabar), 인도네시아!



[Samjong News 24](#)

'2015 삼성KPMG 축구대회' 개최 외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디자인 홍보팀(02-2112-7567) 제작·인쇄 네오메디아(02-512-16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우편번호) 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삼정KPMG의 새로운 미래, 2015 신입회계사를 소개합니다!

지원자 사상 최대...Big4 중 가장 많은 회계사 입사

삼정KPMG는 법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272명의 신입회계사를 새 가족으로 맞이했다. 이는 Big4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사상 최대의 지원자가 몰리며 인원을 늘려 채용한 결과다. 지금부터 진정한 삼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9월 14~25일까지 입문/직무교육을 받은 신입회계사들을 만나본다.



1. 파이팅을 외치며, 삼정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한 2015 삼정KPMG 신입회계사 2. 행복한 웃음으로 입문교육에 참여하는 신입회계사
3. 신입회계사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는 김교태 CEO 4. 직무교육도 즐겁게 임하는 신입회계사



“자랑스러운 삼정인, 이제 시작입니다!”

‘Great People, New Start!’ 열정과 패기로 뭉친 신입회계사들은 삼정KPMG 입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인의 비전과 전략, 각 Function 및 본부 등 삼정인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문교육은 인천 무의도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에서 4박 5일간 진행됐으며, 총 272명의 신입회계사들은 설렘을 안고 교육에 임했다.

*“여러분들이 법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삼정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김교태 CEO의 환영 인사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다. 먼저, 정대길 부대표의 ‘Pride 삼정’으로 삼정KPMG 역사 및 글로벌 등 법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본 후, 서지희 전무는 신입회계사들이 삼정KPMG에서 일의 가치를 알고 자부심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인의 Purpose를 소개했다.

입문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삼정KPMG의 ‘Global Opportunity’ 소개 섹션이었다. ‘Global Opportunity’는 전 세계 156개국 KPMG Member Firm에 파견되어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근무하고,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이 섹션에는 세계 각국에서 파견근무 중인 선배들을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각 나라의 오피스 환경 및 업무를 살펴보는 등 신입회계사들에게 법인생활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해외근무에 대한 꿈을 품게 했다. 한 신입회계사는 *“기회가 된다면 ‘Global Opportunity’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이색적인 경험도 할 수 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듯합니다.”*라고 말했다.



건강한 성장 &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합숙 마지막 날에는 어떤 교육이 진행됐을까? 신입회계사들은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Professional Communication’ 교육으로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시스템, 상사 및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해 학습했다. 특히, 상사/고객 등으로 분하는 역할극을 통해 사회생활을 간접 체험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다.

이어 삼정KPMG의 각 Function 대표들의 환영사와 함께 Function별 비전, 업무의 목적과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입회계사들은 향후 본인들이 맡을 업무에 대해 고민하며, 어떤 분야에 더 흥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기도 했다.

끝으로 합숙 마지막 밤을 기념하는 ‘Welcome Banquet’이 열렸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야외로 나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특히, 동기들 간 입문교육을 통해 느낀 점 및 법인생활에 대한 포부 등을 공유하며 밤새 웃음꽃을 피웠다.

다음 날 아침, 아름다운 동행에 앞장서는 삼정KPMG의 나눔 문화를 엿볼 수 있는 ‘CSR Day’가 진행됐다. 무의도를 떠나와 여섯 그룹으로 나뉘 서울 송파시립요양원, 중앙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6개 기관의 요양원을 방문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께 따뜻한 마음과 추석맞이 선물을 전달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요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한 신입회계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입문교육의 마지막 날, CSR Day를 통해 봉사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전하니 참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삼정KPMG의 일원으로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봉사 소감을 전했다.



더 큰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

입문교육에 이어 신입회계사들은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9월 21~25일까지, 직무교육에 임했다.

각 본부에서 총 16명의 대표강사를 선발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2주간 강사 교육과 리허설 등을 하며 집중교육 준비 기간을 가졌다. 올해 삼정KPMG 신입회계사 직무교육은 Part 1과 Part 2로 구성됐으며, Part 1 교육은 감사 기본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Part 2 교육에는 기말감사 시즌을 위한 전문 지식을 학습하도록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Timely & Continuous’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형태인 VC(Virtual Class)를 통해 토평별로 집중학습할 수 있는 ‘마.리.오(마이 리틀 오딧)’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직무교육으로 신입회계사들은 현업에 필요한 감사 업무 지식과 노하우를 학습한 것은 물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업무 tip 및 본부 생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신입회계사들은 열정을 다해 감사 직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준 대표강사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배운 내용을 향후 업무에 적극 활용해 사랑받는 신입회계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직무교육을 마무리했다.

끝으로 한 신입회계사는 *“모든 교육을 마무리하고 나니, 비로소 삼정인이 된 것이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 고객과 법인, 더 나아가 사회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라며 삼정인으로서의 힘찬 포부를 전했다.



신입회계사와 함께한 ‘Our Higher Purpos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What do you do at KPMG?” 삼정KPMG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질문이다. ‘우리는 왜 KPMG에 일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삼정KPMG는 지난해부터 임직원들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법인의 Purpose를 알리고,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삼정KPMG의 새 식구, 신입회계사들도 입문교육 동안 Purpose의 여정에 동참했다. 이들이 펼친 Purpose Activity를 함께 살펴본다.

열정 가득, Purpose Activity!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신입회계사들이 삼정KPMG Purpose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Purpose 삼정, Purpose Concert, Purpose Adventure, Purpose Performance, Purpose Photo Contest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됐다. 본격적인 Purpose 활동에 앞서 신입회계사들은 각자의 Inspired Image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풍경, 인물 사진 등 다

양한 이미지들은 삼정KPMG의 Purpose의 의미를 발굴하기에 충분했다. 입문교육 첫날밤에는 ‘Purpose Concert’를 통해 Purpose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게 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기분 좋은 가을바람과 선배들의 Purpose Story를 영상과 음악으로 만났다. Purpose Concert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가온 KPMG Purpose처럼, 처음 만나 어색했던 동기들과의 사이도 한층 가까워진 듯했다. 신입

회계사들의 입문교육 첫날밤은 그렇게 무르익어갔다.

합숙교육 마지막 밤에는 ‘Purpose Performance’로 기분 좋은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Purpose Performance’는 신입회계사들이 Purpose를 뮤지컬로 표현하는 이벤트이다. 신입회계사들은 Purpose를 뮤지컬로 담아내기 위해 합숙하는 동안 밤마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구상부터 기획, 노래, 춤, 연기까지 소화하

신입회계사의 미니 인터뷰!

Question

1. 삼정KPMG에 지원한 동기 및 소감
2. 나의 Purpose는?
3. 앞으로의 목표



권일호

1. 안정적인 어제보다는 도전과 미래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 도전을 삼정KPMG에서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2. Professional과 Creativity. 당장 주어진 업무에 대한 전문성만큼이나 새로운 혁신도 이뤄내면서 변화를 선도하고 싶습니다.
3. Deal Advisory본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만큼,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윤세희

1.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삼정KPMG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정인이 되어 사랑하는 동기들과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2. 열정. 동기에 대한, 삼정KPMG에 대한, 전문가의 능력에 대한 열정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Global Opportunity'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파견도 나가고 싶고, 삼정KPMG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여 여성 Partner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삼정KPMG!



이동원

1. 올해 2달 동안의 Part time 경험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보고 싶던 선배 및 동기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정식 삼정인이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2. Freshness. 신입회계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초년생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에만 순응하지 않고, Freshness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적합한 업무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3. 감사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고, Global Elite Progra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수 인재로 선발되고 싶습니다.

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무대에 오른 각 팀은 저마다 개성을 뽐내며, Purpose를 노래와 춤으로 표현해냈다. 이 무대를 함께 즐긴 삼정KPMG 임직원들은 신입회계사들의 끼와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후문이다.

한 신입회계사는 “이번 입문교육을 통해 알게 된 삼정KPMG의 Purpose는 우리가 하는 업무를 떠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원동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Purpose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법인생활에서 Purpose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모든 교육을 마친 신입회계사들은 9월 30일부터 각 본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삼정KPMG는 사회 첫발을 내디딘 신입회계사들이 법인과 고객,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Team Spirit



금융조세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 삼성KPMG Financial Service Tax본부

금융조세업무는 세법에 대한 높은 지식과 함께 ‘금융상품과 거래실무’에 대해서도 정통할 것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객(금융기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KPMG는 금융조세에 특화된 Financial Service Tax본부(이하 FS TAX본부)를 지난해 4월 1일 자로 신설했다. FS TAX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조세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조세 이슈 및 동향

최근 금융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세무 이슈를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브랜드 사용료 및 경영 자문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EU Audit Reform이다.

먼저, 브랜드 사용료 및 경영 자문료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은 자신의 한국지회사 및 한국 지점에 브랜드 사용료 및 경영 자문료를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 금융

기관은 해외의 자회사 및 지점에 브랜드 사용료 및 경영 자문료를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향후 과세관청은 국내 금융기관도 해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사용료 및 경영 자문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한 정당한 브랜드 사용료 및 경영 자문료의 액수 책정, 이에 따른 세금 징수 등 복잡한 조세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FS TAX본부는 이 분야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삼성KPMG 이전가격 팀과 업무협의를 통

해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부터는 EU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법인 변경 및 특정 컨설팅업무의 제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EU Audit Reform Act가 시행될 예정이다. EU Audit Reform Act가 시행될 경우 국내 세무대리인 변경의 사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S TAX본부는 해당 규정에 대한 Champion을 지정하고, KPMG Global과의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삼성KPMG FS TAX본부 주요 서비스

금융기관 세무조사	세무조사 전 사전 진단	유리한 유권해석 취득을 위한 지원	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과세관청의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	조세법령 개정을 위한 지원	주식평가업무	브랜드 사용료 평가 및 경영 자문료 구축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자문

있다. 또한, 불합리한 과세를 야기하는 세법조항에 대한 법령개정도 준비 중이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금융조세 전문가(파트너와 실무 회계사)와 변호사가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법령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필요한 고객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국내외 금융기관의 성공 지원하는 세무 파트너

FS TAX본부는 금융실무에 밝은 조세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재 52명의 본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별 · 산업별 전문 팀제 형태로 조직되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국내 금융지주그룹, 국내 시중은행, 국내 증권사, 국내 보험사, 카드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기관, 해외금융기관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 등으로 그 범위가 넓다.

특히 생명보험 · 손해보험 등 보험사와 카드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기관은 산업별 팀제 형태로, 국내 금융지주그룹 등은 고객별 팀제 형태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전체의 세무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FS TAX본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금융기관 세무조사 지원 ▲세무조사 전 사전 진단 ▲유리한 유권해석 취득

을 위한 지원 ▲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과세관청의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 ▲조세법령 개정을 위한 지원 ▲주식평가 ▲브랜드 사용료 평가 및 경영 자문료 구축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자문업무 등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S TAX본부는 고객별/산업별 팀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고객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주요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금융조세 이슈에 대해 Staff에서 Partner에 이르기까지 격의 없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끈끈한 팀워크는 덤이다. Tax Center of Excellence(TCOE)의 리더인 김성현 이사와 주기적인 세무 이슈 논의, 그리고 이러

한 논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 중요한 Idea를 생산하고 있다.

최강의 'FS TAX본부'가 되기까지!

FS TAX본부는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통해 고객이 제시하는 이슈 하나하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역시 삼성KPMG'라는 평가를 받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도 FS TAX본부는 금융조세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는 것을 강조하며 양질의 정보를 전문가 간 상호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조세 분야의 Star Player를 양성하고 고객의 신뢰를 획득하며, 고객으로부터 1순위로 선택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Contact Us

삼성KPMG Financial Service Tax

국창수 본부장(전무이사)

Tel. 02-2112-0918

E-mail. changsoocook@kr.kpmg.com

김경미 상무이사

Tel. 02-2112-0919

E-mail. kyeongmikim@kr.kpmg.com

김철 상무이사

Tel. 02-2112-0930

E-mail. ckim2@kr.kpmg.com



SL Corporation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동차부품 업체, 에스엘

올해 60주년을 맞은 에스엘은 1954년 설립 이래, 자동차 헤드램프를 비롯한 각종 램프와 새시, 미러 등 자동차 부품 생산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2013년에 국제표준 ISO 26262 인증을 획득하고, 2015년에 GM SOY(Supplier of the year) AWARD를 19년 연속 수상하는 등 꾸준한 연구 및 개발로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현재 에스엘은 현대·기아차, GM, Ford를 비롯해 중국의 SAIC, CHERY, DONGFENG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며 글로벌 자동차부품 업체로서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혁신과 균형을 추구하는 가족 친화적 기업

에스엘은 '신뢰, 도전, 겸손'이라는 핵심가치 하에 자동차부품 업계 초일류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객을 위한 혁신, 균형 있는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가능한 지속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에

스엘은 '선행적 품질확보, 고객밀착 강화, 글로벌 오퍼레이션 역량 강화'라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에스엘의 기업문화는 가족적이고 학습 지향적인 조직구조로 대표된다.

2011년 대구에서 유일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에스엘은 '가족 같은 기업'을 목표로 다양하고 폭넓은 직원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사업장 안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을 비롯해서 축구장, 체력단련실, 농구장을 만들어 직원들의 레포츠 활동을 돕거나 서클활동 지원, 가족초청 행사, 신입사원 입사 1주년 행사 등도 열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학습을 강조하며 연수원 설립, 특강 운영, 열린 토론 등을 통해 직원들의 창조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램프 선도기업에서 글로벌 자동차부품 업체로

에스엘은 램프와 새시, 사이드미러 등 다양한 부품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며 지난해 글로벌 기준 약 4조 원의 매출을 올린 세계적 자동차부품 업체로 거듭났다.

램프의 경우, 국내시장의 선도기업으로서 LED 램프 설계기술부터 양산설비까지 보유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내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새시는 지난 2013년 GM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2020년부터 GM 전 브랜드의 오토레버를 전량 독점 공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4월 Ford에 MT레버를 수주하기도 하는 등 고객사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카 부품 개발을 위한 전장부품 신뢰도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솔루션링크 등 컨설팅 업체와 공동으로 기능안전 국제표준(ISO 26262) 대응을 시작,

독일 TÜV 라인란드로부터 기능안전 매니지먼트(FSM)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 최초다.

여기에 지난해 전자개발센터를 신설, 기존의 선행연구개발 조직과 사업부문별 전자 관련 인력을 통폐합해 각종 전장부품 개발을 전담토록 했다. 에스엘은 센터를 활용해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탑재되는 카메라 센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장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에스엘

에스엘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회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의 책무를 에스엘서봉재단을 통해 실천 중이다. 에스엘서봉재단은 2006년 이충곤 회장이 사재 200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다. 에스엘서봉재단은 설립

이후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 11개 대학 학생과 14개 연구단체 및 지역학교 등에 장학금을 지원, 지역의 인재 양성을 실천 중이다.

이와 함께 에스엘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늘고 있다. 바자회 개최, 급여의 천 원 이하 우수리 모금, 복지기관 생필품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내 봉사동아리가 방문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에스엘서봉재단이 정기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임직원들의 활동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다.

에스엘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 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화학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전략

삼정KPMG 경제연구원(ERI)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요 트렌트와 산업별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Issue Monitor>에 담고 있다. <Market Reader>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게재하고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화학 산업의 동향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논어》 위공령 편에 등장하는 ‘원모심려(遠謀深慮)’는 “먼 앞일을 헤아리는 깊이 있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눈앞에 닥치는 근심이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화학 산업이 고려해 봐야 할 단어이다. 최근 한국의 화학기업은 새로운 질서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화학 산업 내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신기술 차원에서는 글로벌 선도 기업에게, 원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중국과 중동에게 경쟁우위를 빼앗긴 구조적 난관을 직면했다. 이에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눈앞의 것만을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myopia)보다 먼 앞일을 헤아리는 전체적인 시각(holistic)이 더 강조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최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글로벌 화학 산업을 조명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변화를 추구하는 선도 화학기업을 분석했다. 산업 경계와 시장 및 경쟁구도, 규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선도 화학기업이 장기적인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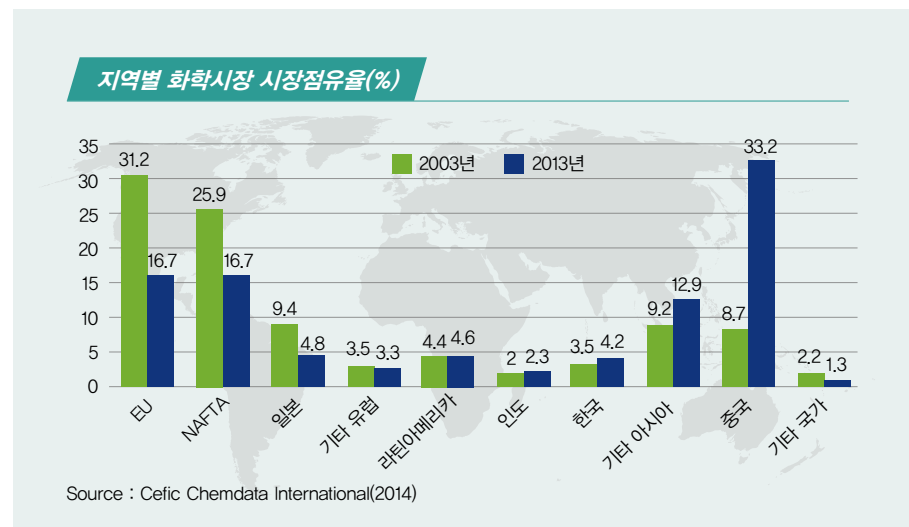
래 비전에 따라 수행 중인 3대 전략(조직 재설계, Partnership & Collaboration, M&A)을 제시했다.

변화에 직면한 글로벌 화학 산업

확장되고 있는 화학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변화를 맞이하면서 전통적인 소재산업에서 전 산업의 중심으로 그 위상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 기업은 생존을 위해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산업 경계의 변화이다. 기존 화학제품이 고도화되고 타 산업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신분야 등장 등을 통해 경계가 확장 중이다. 둘째, 시장과 경쟁구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력과 노하우, 수요 시장으로의 접근성, 공급원료 보유, 현금과 부채라는 경쟁우위는 지역별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한다. 과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



동 국가들의 부상으로 힘의 균형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신흥 화학기업들도 부상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의 변화이다. 화학물질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려는 노력은 환경규제 방침의 형태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는 중이다. 화학업체는 이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지만, 친환경 제품 생산 잠재력을 확보한다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화학기업의 전략

과거에는 공급망의 효율성이나 성장, 원가 절감이 경영 아젠다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이제 한국 화학기업은 다음, 즉 '미래'를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막대한 원재료를 보유한 중동 기업의 부상과 수많은 시장 참여자로 가격 인하 압박을 행사하는 중국까지, 현재의 사업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뿐 아니라 경쟁자 대비 미래를 위한 전략을 한 발 더 앞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미래의 역량을 남보다 빨리 키워나갈 수 있을까? 미래에 무엇에 집중해서 역량을 키워나갈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래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고 만들어가는지, 즉 'What'에 앞서 'How to'가 국내 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파트너십, M&A를 통해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측면에 주목했다. 기업의 전사적인 전략적 흐름 차원에서 BASF, Dow Chemical, SABIC 등의 글



로벌 기업 사례는 국내 화학기업에게 선제적인 활동을 통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전략① 혁신을 위한 '양손잡이' 형의 조직 재설계. 조직 재설계 측면에서 기업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사업을 발굴하는 양손잡이 조직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 조직에 있어서는 분석-전략-기술-투자의 분화된 형태로 조직을 설계하여, 기술 확보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전략② Partnership & Collaboration으로 수요 발굴 및 생태계 구축. Partnership & Collaboration은 수요 시장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품 개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생태계 구축의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종 기업 간의 무한한 기술이 접목되는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략③ 선택과 집중의 수단이자 신소재 · 신기술 확보 전략으로서의 M&A. M&A는 기업의 포트폴리오 재구조화(realignment)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때 M&A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는 선택

이기도 하고 산업 사이클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신소재 ·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내부 역량을 통한 개발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M&A가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선도 화학기업들의 미래 전략은 '기술력 확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과거 핵심역량으로 지켜왔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기존 역량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국내 화학기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의 틀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미래를 선점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파라 책임연구원
Tel. 02-2112-0449
E-mail. farrahlee@kr.kpmg.com



CEO COLUMN

예측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라



삼성KPMG CEO 김교태

제너럴일렉트릭스(GE)가 또 한 번의 큰 변신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NBC를 미국 최대 케이블그룹인 컴캐스트에 매각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GE의 핵심이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가전사업을 포기하고 프랑스의 국민 기업이나 다름없는 알스톰의 에너지 사업을 인수하는가 하면, 그룹 영업이익의 40%가량을 책임지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GE캐피탈도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이쯤 되면 1983년 잭 웰치가 만들어 최근까지 GE를 견인한 그룹의 3가지 핵심분야인 Core, High tech, Service 사업 부문의 구도가 사라진 셈이다. Core 사업 부문에서는 가전이 없어지고 조명과 발전설비와 같은 에너지 사업만 남았고, 금융, 정보, 방송으로 구성된 서비스 사업 부문은 통째로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GE가 제조업으로 회귀하는 것일까?

GE가 제조업에 집중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니다. 제조업과 사물인터넷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인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의 강자로 변신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인터넷은 빅데이터 분석과 첨단기계의 결합으로 기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고장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GE는 지난 10년이 소비재인터넷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산업인터넷의 시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첨단기술 제조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GE가 설립 후 지금까지 변화무쌍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해 온 것처럼 기업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야 살아남기 때문이다.

GE가 앞으로 10년을 예측해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이 중요해진 현재, 기업의 미래예측과 정보 분석력은 기업의 흥망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GE보다 조금 앞서 산업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개발에 들어간 독일의 지멘스(Siemens)는 1847년에 설립해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이다. 전기 업체에서 출발해 에너지, 인프라, 헬스케어, 산업

설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후반 지나친 다각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계기로 사업변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미래 예측 및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멘스는 고유의 미래연구기법인 PoF(Picture of Future)를 통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높으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미래예측 활동을 넘어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창출시켜야 한다. GE, 지멘스, 인텔, 애플 외에도 로열더치 쉘(Royal Dutch Shell)그룹의 '셸 시나리오', P&G의 'GBS(Global Business Service)' 조직 등과 같이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미래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미래예측을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기업의 활동은 기업의 전략적 민첩성과 위기대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산업 주도권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규모를 크게 갖거나 고유한 예측방법론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지속성과 네트워킹의 범위가 중요하다. 조직의 크기가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식과 노하우가 쌓이고, 외부 시각을 다양하게 입수해야 외부 환경변화를 정확히 인지해 효과적인 미래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내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 경쟁적으로 고민하는 지금, 지속적으로 미래 예측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외부환경과 소통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기고문은 2015년 9월 10일 자
조선비즈 '김교태의 경영산책'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

TAX

CFO가 알아야 할 기업소득 환류세제 주의점

Domestic TAX 1 **이찬기** 전무이사

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본 제도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기업소득에서 법정 사용기준율에 미달하게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 10%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사용기준율은 투자 포함방식(80%)과 투자 제외방식(30%) 중 납세자가 선택하되, 최초 선택한 방식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업소득, 투자의 정의 및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이하 '조특법') 중소기업의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업종요건 등에 의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기업소득의 정의

기업소득이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액 등을 가산하고 법령상 의무적립금,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특법에 의하여 일명 '톤세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 기업은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이 아닌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는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기업소득 환류세액 계산목적의 세무조정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의 정의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금액은 국내에서 투자되는 사업용 유형자산, 업무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관련 시행령 등에서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부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투자는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우리나라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고자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해외투자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무형자산이란 특허권, 광업권, 개발비 등 제한적으로 열거된 항목만이 해당되는 바, 다수 기업들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업권,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목적상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기업소득 환류세제 목적상 투자라 함은 직접 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회사 설립 및 기업 인수합병 등 지분거래를 통한 투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은 4,000여 개사 수준이며 이중 32% 정도가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신규 규정이니만큼 많은 실무적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기업들은 적기에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필자는 기업들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향후 3년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사용기준율의 선택 및 기타 당해 제도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 예상되는 실무적 애로사항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실무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기고문은 2015년 7월 9일 자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벤처캐피탈 자금, 아시아로 모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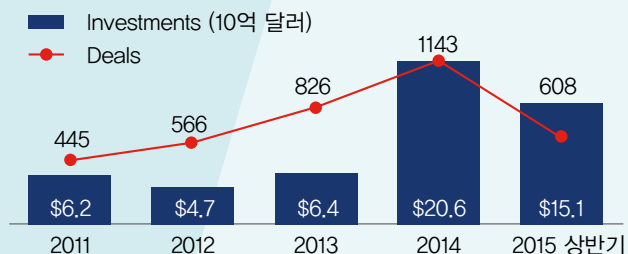
아시아, 벤처캐피탈 투자 자금 매년 45% 증가

‘2015년 2분기 벤처 펄스(Venture Pulse Q2’15)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벤처캐피탈의 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성장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아시아지역에 투자된 벤처캐피탈 자금은 100억 달러로 2011년부터 매년 45%씩 증가했다. 설립 후 안정화된 후기 단계(Late stage) 기업에 투자된 2015년 2분기 평균 거래액은 약 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동 기간 유럽 대비 약 270% 높은 수준이다. 투자된 펀딩 자금량에서도 유럽을 앞섰다. 지난 다섯 분기 동안 335억 달러가 아시아에 투자됐지만, 유럽은 130억 달러에 그쳤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의하면 아시아에서는 대규모 벤처투자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 2분기에 진행된 6건의 투자액은 42억 달러로 올해 아시아지역 전체 투자액의 25%를 차지했다. 그중 건당 최고 펀딩규모는 한국의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으로 10억 달러가 투자됐다. 중국의 온라인 보험 기업인 중안보험(9.3억 달러)과 음식점 리뷰 웹사이트인 다이안핑(8.5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 Asian Annual Financing Trends to VC-Backed Companies 2011 - 2015 상반기



북미-유럽지역의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아시아지역의 벤처캐피탈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나, 여전히 북미지역이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을 주도했다. 북미지역에는 올 2분

KPMG International은 미국 데이터정보업체 CB인사이트와 함께 ‘2015년 2분기 벤처 펄스(Venture Pulse Q2’1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기 190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2% 증가했다. 북미지역에서도 대규모 벤처투자의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 2분기 진행된 6건의 대형 거래가 2분기 전체 펀딩규모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유럽의 벤처캐피탈 시장 역시 지난해 전체 투자액의 60%에 달하는 66억 달러의 투자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그러나 유럽의 거래 점유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 신생기업(Early Stage)에 대한 투자 규모는 320만 달러를 기록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럽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후기 단계 기업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규모 2배 증가...한국 벤처산업 성장 기대

삼정KPMG 펀드자문 전문가 김이동 상무는 “2011년 497억 달러이던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가 2014년 883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벤처캐피탈들도 2013년 기준 46.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2014년 말 현재 2조 3,336억 원에 달하는 운용자산을 확보했다”며, “페녹스(FENOX), 디이브이(DEV)와 같은 글로벌 벤처캐피탈들도 한국 내 투자활동을 개시하는 등 국내 벤처산업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015년 2분기 벤처 펄스(Venture Pulse Q2’15) 보고서’는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에 대해 글로벌 지역적 측면에서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KPMG 데니스 포트넘 엔터프라이즈부문 대표는 “KPMG는 앞으로도 벤처캐피탈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소스를 갖고 있는 CB인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2분기 벤처 펄스’의 자세한 내용은 kpmg.com/venturepul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행복충전소



生生之樂



가자 세계로!



Samjong News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허건웅 Senior가 김민지 Manager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Manager님 덕분에 법인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GH본부 허건웅 Senior



칭찬주인공

Global Tax본부
김민지 Manager



김민지 Manager님을 칭찬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시 Tax2본부(현 Global Tax본부)에서 본 김민지 Manager님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든 기간에도 새벽같이 출근하셔서 업무에 집중하시고 또 다음 날 새벽에 '잠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충격과 경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Staff들 조서 리뷰까지 꼼꼼히 체크해주시고 Review note를 전달해주는 모습에서 회계법인에서의 전문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시면서도, 또 아래 Staff들의 입장에 잘 헤아려주셔서 제가 본부에 있는 동안 어렵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많이 혼나기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회계법인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챙겨주신 김민지 Manager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설 『일은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를 추천해 드립니다. 단편 선으로 구성되어 바쁜 와중에도 조금씩 읽기 좋고, 또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시는 Manager님께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Manager님처럼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김민지 Manager에게 『일은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를 선물합니다!



『일은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 엘리스 먼로, 조이스 캐럴 오츠, 제임스 설터 외 지음 / 홍시

‘2013년 노벨문학상’ 수상 엘리스 먼로부터 ‘작가들의 작가’ 제임스 설터까지 세계적인 소설가 32인의 일을 테마로 한 소설 32편이 담긴 작가들의 대표 작품 선집. 정시에 출근하고 일을 끝내야 하며 일거리를 집에 가져가고 어떻게든 고용되어야 하며, 때로는 해고되고 승진하거나 좌천 당하며, 때로는 넉더리가 나서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하지만 돈벌이를 해야 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설가들은 인생의 선배 혹은 친구처럼 독자들을 위로한다.

부모님을 뵙니다! Global Tax본부 박혜민 대리 “사랑하는 아버지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은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30년 이상 교직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퇴임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 가족들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일하신 아버지가 정말로 자랑스럽고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후련하시다며 기쁘다 웃으셨지만 더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퇴임식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지만 섭섭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절끔 났습니다. 오빠와 함께 집을 나와 살아 퇴임식을 잘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웠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퇴임식 파티를 해주셨다며 받은 선물들을 자랑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그해에 겹경사가 생겼다고 저를 복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 어린 복덩이가 어느덧 어른이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교직에 발을 내디딘 아버지는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 전화했을 때 “엄마, 아빠 몇 년 동안 교직에 있었어?”라고 여쭙보니 “딱, 너 나이만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하더군요. ‘참 오랜 시간 아버지께서 수고하셨구나, 불평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주 시골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과 꽃, 과일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렵게 금연을 하신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과일과 견과류를 드시는데 준비한 큰 과일바구니를 보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과일 위주로 가득가득 채워서 준비하였더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야~너희 회사 좋다. 이런 선물도 보내고 이 과일 한 달은 먹겠다. 그런데 왜 전에는 안 했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께 좋은 추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미리 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퇴임 축하 드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니 이제 아빠 인생은 시작이에요. 엄마랑 재미있는 시간 많이 보내시고 건강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엄마, 아빠가 교직 생활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 엄마 덕분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빠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내딸이 더 효도 할게요! 엄마, 아빠! 딸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뵙니다!’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모님 직장/병실 방문 시 함께 드실 다과 혹은 생선, 은혼식,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기념일에 부모님께 드릴 선물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특별한 날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 법원에서 지원하는 선물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매월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PPC 최희진 직원 02-2112-0046 / heuijinchoi@kr.kpmg.com



아버지의 퇴임식을 기념하며 건넨드린 사랑의 과일바구니



삼성KPMG 야구 동호회

승리를 향해 역전 만루홈런을 쏜다!

‘2015 Big4 야구대회’ 우승을 위해 맹훈련에 돌입한 삼성KPMG 야구 동호회. 지난해에는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쳤지만, 올해는 꼭 우승하리라는 마음으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역전 만루홈런만큼이나 짜릿한 승부를 보여줄 삼성KPMG 야구 동호회를 만나본다.



야구愛 빠진 삼성 패밀리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동호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CM본부 정세환 S.Senior입니다. 삼성KPMG 야구 동호회는 2011년 6월, 야구를 좋아하고 함께 즐기고 싶은, 그야말로 야구愛(애) 폭~ 빠진 삼성인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창시절과 달리 직장인들이 야구와 같은 단체 스포츠를 즐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야구를 좀 더 쉽게 접하고, 즐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011년 8월에 정식 사내 동호회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동호회원 수는 27명이며, IM2본부의 조자영 부대표님께서 동호

회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고, 마케팅본부의 신경철 전무님께서도 단장으로서 운영에 실무적인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은 물론 직접 선수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저는 Global Tax본부의 이진욱 Manager님과 함께 총무로서 동호회의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송파구 야구연합회에 등록하여 토요 야구리그에 참여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법인 야구대회’, 일명 ‘Big4 야구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야구리그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트레이닝 활동 및 연습경기 위주로 운영 중입니다. 소개해드리고

나니, 프로야구 구단과 일정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네요. 앞으로는 일정뿐만 아닌, 실력도 프로야구단처럼 쑥쑥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하.

흔히, 야구는 멘탈 스포츠라고 하는데 특히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폐활량보다는 침착함과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철 전무님, 윤권현, 노상호 상무님 같은 파트너분들께서 직접 선수로 뛰시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시는 점이 경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 본부의 다양한 삼성인들을 만나 뵙고 허물없이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도 동호회 활동의 큰 장점입니다. 지난 9월 15일에는 동호회장님, 단장님 이하 많

은 회원이 참석한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야구로 하나 된 모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는 야구였습니다. 어느 그룹에 가도 편하게 야구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드문데, 마음 편히 야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처럼 경기 외에도 팀 회식으로 친목을 다지다 보니, 법인에서 동호회원을 만날 때마다 가족과도 같은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덕분에 애사심도 더욱 생겼고요. 이처럼 매력적인 스포츠 야구를 여러분들도 경기 관람을 넘어 직접 선수가 되어 그라운드를 함께 뛰어 보는 건 어떨까요?

'Big4 야구대회', 이제는 우승이다!

야구 동호회의 1년 행사 중 가장 큰 메인 이벤트는 'Big4 야구대회'입니다. 지난해에는 한영회계법인과의 결승전에서 패배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초반에는 경기가 잘 풀려 점수가 10점 차이가 났습니다. 모두들 경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이미 우승한 것처럼 미리 우승에 져서 자만한 마음으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7점 차, 3점 차 점점 점수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결국, 마지막회 3루수였던 제 실책을 시작으로 여러 선수가 돌아가면서 실책 퍼레이드를 펼친 끝에 12:13으로 패

배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 시작이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그날 경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는 꼭 우승컵을 거머쥐겠다는 일념으로 동호회원들은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강할 수 있도록 리그 경기에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리그 경기를 마친 오후에는 선수 출신 코치들이 운영하는 실내연습장에 기본 레슨을 받으러 갑니다. 야구는 도구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이기에, 잘못된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올 수 있고, 실력 성장도 더디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을 전문 코치의 레슨을 통해 다져가고 있습니다. 'Big4 야구대회'가 열리는 10월 17일, 그날까지 집중적인 레슨 및 연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 동호회원 모두는 야구, 그 자체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경기와 연습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교태 CEO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목적을 버리면 목적에 다다른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즐기면서 묵묵히 연습하다 보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삼성인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아자 아자 파이팅!



'삼성KPMG 야구 동호회'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삼성KPMG 야구 동호회는 경기력, 분위기뿐 아니라 법인의 지원 역시 4대 법인 중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활동에 대한 강제성과 상하관계도 없습니다. 한 경기만 뛰어도 야구에 폭 빠지게 될 겁니다. 11월에 리그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모여서 트레이닝 및 연습경기로 겨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전지훈련도 논의 중이고요, 리그가 끝난 후에도 야구를 천천히 알아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야구 동호회를 찾아주세요! 신입사원들도 환영합니다."

회장: 조자영 부대표(IM2본부)

단장: 신경철 전무(마케팅본부)

총무: 정세환 S.Senior(CM본부)

이진욱 Manager(Global Tax본부)

*가입을 원하는 삼성 가족은 총무 정세환 S.Senior(02-2112-3265/ sehwanchung@kr.kpmg.com)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015 Big4 야구대회

· 일 시 10월 17일(토)
· 장 소 김포송일야구장

삼성KPMG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동호회명	가입 문의
농구	서지승 S.Analyst(Deal Advisory2) 02-2112-3380
마라톤	이태용 Manager(IA/FR) 02-2112-7751
축구	허승훈 Manager(B&F2) 010-2011-6475
자전거	박성운 과장(총무) 02-2112-0980
테니스	박상훈 S.Manager(IM1) 02-2112-7839
트레킹	트레킹: 정화석 Director(인사팀) 02-2112-0047 산행: 정우철 Director(RCS) 02-2112-3079

*삼성 가족들과 취미 공유 및 친목 교류를 원하신다면 신규 동호회를 개설해보세요! 동호회 등록회원 수 총 15명 이상이 될 경우 동호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문의 PPC 최희진 직원

02-2112-0046

heuijinchoi@kr.kpmg.com





가자 세계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풍경

인도네시아 Korea Desk 오동규 Manager

아빠까바르(Apa Kabar), 인도네시아!

아빠까바르(Apa Kabar), 생소하게 들리는 이 말은 인도네시아어로 ‘안녕하세요?’를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인도네시아 Korea Desk 오동규 Manager를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인도네시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그가 전하는 인도네시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본다.

인도 & 경제 대국, 인도네시아

처음 인도네시아로 파견 근무를 나간다고 했을 때 할머니께서 “인도네시아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맛있는 카레도 많이 먹고 오렴!”이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래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혼동하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광지 발리 이외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국이 인도네시아는 2억5천만 명 인구 대국으로 자카르타에만 약 1,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3,500불밖에 되지 않아 흔히 후진국으로 알고 있지

만, GDP 자체는 8,703억 불로 세계 16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특히 석유 매장량 세계 27위, 가스 매장량 11위, 석탄 수출량 세계 1위 등 자원이 풍부하고 세계 인구 4위의 거대 소비시장이다 보니 활발한 해외 직접 투자를 바탕으로 G20 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투자 매력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선,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전력 보급률은 50% 미만

이고, 버스 노선과 운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지하철은 아예 없습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5~6km 거리도 한 두 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허다해서 하루에 미팅을 3개 이상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 정부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사업을 발표하지만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2018년 1차 개통 목표로 하는 LRT 사업도 제대로 진행 중인지 의문입니다. 복잡하고 불분명한 행정절차와 공무원 재량에 따른 편법 처리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속 이슬람 문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스크' 사원이나 건물 내 기도실에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공공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기도실을 설치해야 하기에 KPMG 인도네시아에도 기도실이 있고 기도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 얼굴을 청결히 씻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마호메트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한 달을 '라마단'이라고 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금식을 하는데요,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 등은 예외여서 종종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껴병을 부리기도 하는 듯합니다.

재밌는 것은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되면, 평상시보다 식당에 사람들이 붐빕니다. 다들 5시 50분부터 식당에 앉아 숟가락과 포크를 들고 6시 종이 울리길 기다리다 종이 땡 울리면 기다렸듯이 폭식(?)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식료품 매출이 많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라마단'이 지나면 '르바란'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이 옵니다. 우리나라 추석처럼 온 가족이 고향에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나라가 크다 보니 보통 1~2주 정도 휴가를 떠납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 업무로 인해 '르바란'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여행, 출장, 업무를 계획하는 경우 꼭 '르바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성공 지원하는 팔방미인, 인도네시아 Korea Desk!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국내 대기업이 모두 진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PMG 인도네시아는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Korea Desk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Contact Us

인도네시아
Korea Desk
오동규 Manager
Tel.
+62 215 704888
E-mail.
Donggyu.Oh@
kpmg.co.id



1. 발리의 관광 명소 울루와투 절벽에서 아내와 함께 찰칵!

2. KPMG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에너지 자원 행사장에서 고객들과 함께

3. 크라카타우 포스코 제철소에서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회계감사, 세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 IFRS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현재 90% 이상의 기준서가 IFRS를 준용하고 있어 한국과 회계기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와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감사 일정 및 실무적인 차이점 등을 고객과 현지 감사인 사이에서 잘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세법은 한국 세법과는 다른 점이 많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입니다. 세무처리 및 세무조사 등 세무 자문을 위해서는 Korea Desk 역시 인도네시아 세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지 TAX팀과의 교류 및 협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과 함께 컨설팅 및 기업 인수 자문 분야도 KPMG 인도네시아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오일/가스, 석탄 등 자원 분야와 무역, 리테일 분야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기업인수 실사 등의 업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주재원이든 자기 전공만 담당하는 사람이 없듯 인도네시아도 회계 담당자가 시장조사도 하고 인사나 노무문제도

담당해야 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Korea Desk는 한국 기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팔방미인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거래처를 방문하고 현지 모임에 참석하면서 정보와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를 보면, 1위 일본(47.1억 불), 2위 싱가포르(46.7억 불), 3위 미국(24.4억 불)에 이어, 한국이 22.1억 불로 4위입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인도네시아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데, 2014년 발표된 지하철 건설 총 사업비 15억 불의 80%가 엔 차관으로 구성됐을 정도입니다. 또한, 자동차 시장의 90%를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고 길거리나 Mall에는 일본 식당이 즐비합니다. KPMG 인도네시아만 해도 일본 기업 수익이 한국 기업 수익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한류를 바탕으로 문화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 및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하길 기원하며 Korea Desk가 한국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NEWS

SPECIAL NEWS

‘2015 삼정KPMG 축구대회’ 개최

삼정인이 그린 행복한 소통과 화합의 장

함께 땀 흘리며, 그라운드를 누비고, 목청껏 소리 내 응원하는 삼정인들의 얼굴 속에서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난다. 지난 9월 19일, 구리시민스포츠센터에서 ‘2015 삼정KPMG 축구대회’ 결승전이 열렸다. 축구를 통한 건강한 신체 단련과 임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삼정KPMG 축구대회는 지난해를 첫 시작으로, 올해도 임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아래 개최됐다.

정직, 소통, 공헌, 존중, 협업, 수범, 최고, 통찰, 이 총 8개의 팀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지난 9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축구 예선전을 진행했다. 그 결과 A그룹에서는 소통(BF/계리)과 공헌(ICE) 팀이, B그룹에서는 정직(CM/IGH/JP)과 최고(CS/BCS) 팀이 결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결선의 날, 준결승 첫 경기부터 연장전에서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등 팽팽한 접전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치열한 승부 끝에 대망의 결승전에 오른 팀은 정직(CM/IGH/JP)과 최고(CS/BCS) 팀. 예선부터 쟁쟁한 실력가

들이 모인 팀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 두 팀이 결승까지 오르게 됐다. 골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반전은 끝나고, 후반 시작 후 최고팀이 정직팀의 골문을 두드리며, 1:0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지난해 우승팀으로 에이스가 많은 정직팀이라 최고팀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러 차례 최고팀의 골문을 위협한 정직팀이었지만, 최고팀의 거미손 김창현 S.Manager의 눈부신 선방으로 결국 최종 우승은 최고팀으로 선정됐다.

하프타임에는 파트너와 고문단, 여직원이 참여한 ‘나도야 찬다’ 및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페널티킥’이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골든슈(시종근 Manager)/실버슈(정세환 S.Senior)/MVP(김창현 S.Manager)/응원상(공헌팀)/3위팀(소통팀)/준우승(정직팀)/우승(최고팀) 등에 선정된 이들에게 상금과 트로피를 전달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49인치 TV 등의 상품이 걸린 럭키 드로우를 끝으로, ‘2015 삼정KPMG 축구대회’의 모든 막이 내렸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2015 삼성KPMG 축구대회



아자 아자 파이팅! 응원도 즐겁게!



'가족 페널티킥', 아이들도 신나게 공 차요~



파트너&고문단 경기 시작 전, 힘차게 파이팅!



승리를 향한 포효!



거미손 김창현 S.Manager의 눈부신 선방



'가족 페널티킥'에 참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아이들!



시원한 아이스크림 입에 물고, 페이스 페인팅하며 축제 즐겨요~



공을 향한 집념 하나로!



49인치 TV가 내 손 안에! 감사합니다!



NEWS

‘Together in 3 years!’ GEP 6기 수료식 신뢰받는 전문가로 한 단계 UP!

삼정KPMG는 지난 9월 10일, Global Elite Program(이하 GEP) 6기 성적우수자 시상식 및 GEP 6기의 만남의 장인 ‘Together in 3 years’를 개최했다. GEP는 삼정인들이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세계 무대에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년 과정의 Junior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Together in 3 years’에서는 GEP 3년 과정에서 좋은 성적과 높은 업무 성과를 거둔 ▲강신목 S.Senior(B&F3) ▲구수정 S.Senior(ICE2) ▲권용진 S.Analyst(Deal Advisory5) ▲박선영 S.Senior(IM1) ▲양동빈 S.Senior(Global Tax) ▲이상민 S.Senior(IM2) ▲조준호 S.Senior(ICE2) ▲채두현 S.Senior(CM) ▲탁승혁 S.Senior(IM3) 총 9명의 성적우수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직접 시상에 나선 김교태 CEO는 “올해 우리 법인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우수 인재 확보 및 양성입니다. 여러분

들이 삼정KPMG 미래의 주역이며, 앞으로도 법인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GEP 6기 성적우수자인 ICE2본부의 구수정 S.Senior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더욱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3년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도 많은데 제가 받아도 되는지 반성도 되고, 부끄럽지 않은 전문가로 성장하자고 무한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을 마친 후에는 ‘버리고, 세우고, 지키기’라는 주제로 이지훈(前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現 세종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으며, Global Opportunity 소개 및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비전을 다져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GEP 6기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법인 대표이사의 시상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연수의 기회가 제공된다.



MONTHLY NEWS

‘영국으로 가자!’ FY2015 S.Manager 승진자 첫 해외연수 진행

삼정KPMG가 ‘Great S.Manager, New Start’라는 슬로건으로 FY2015 S.Manager 정기 승진자 교육을 진행했다. 10월 1~2일까지 양평 현대 블루비스타에서 ‘Engagement, Client, People, Myself’ 등에 관한 내용으로 S.Manager 승진자 합숙 교육이 진행됐다. 한 승진자는 “법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었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S.Manager 승진자를 위한 해외연수가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총 4팀으로 나뉘어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이번 해외연수는 법인의 FY2015 전략인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S.Manager 승진자들은 케임브리지(Cambridge)에 소재한 EF 교육시설에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 참여하고, KPMG UK에 방문해 영국 현지 업무 환경 및 문화 등을 경험할 예정이다.

삼정KPMG 김하균 상무, KOEM 청렴옴부즈만 위촉

지난 9월 11일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본사에서 삼정KPMG IGH 본부 김하균 상무의 청렴옴부즈만 위촉식이 진행됐다. 김하균 상무는 지난 2013년 9월 회계분야 전문가로 청렴옴부즈만에 위촉된 데 이어, 이번 재위촉을 통해 2년 동안 공단의 반부패, 청렴을 위한 감시자로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2015 퇴직연금 세미나’ 열려

지난 9월 11일, 삼정KPMG는 ‘2015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본 세미나에서는 퇴직급여채무 평가 방법 이슈 사항 및 관련 회계 감사 이슈 사항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업계 실무진 간에 네트워킹 시간도 갖고, 그 밖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Contact : 금융보험계리 한은섭 부대표 / eunsuphan@kr.kpmg.com

‘외투법인을 위한 세미나’ 개최

9월 16일 전경련회관에서는 삼정KPMG의 외투법인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규제환경과 외투법인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외감법 개정 등 최근 재무보고 및 결산환경의 변화/ 규제 대응을 위한 외투기업의 과제/ 용역대금과 관세 과세가 격과의 관계/ Management Fee, Royalty 등 국외 특관자 거래에 대한 과세동향에 대해 살펴봤다.

* Contact : CM본부 신장훈 전무 / jshin@kr.kpmg.com



사랑 나눔

‘희망의 집 고치기’ 등 나눔 활동 전개

삼정KPMG는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가을을 맞이했다. 9월 11일에는 해비타트와 함께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서울 소재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소외계층 가정 2세대를 선정하여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낡은 도배지와 장판을, 깨끗한 새 도배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쾌적한 집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이외에도 삼정KPMG는 ‘송편빔기’ 봉사, 소외이웃에게 추석 송편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NOTICE

▶ 삼정KPMG 멕시코 투자환경 세미나

- 주제 : 멕시코 투자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방안
(법인관리, 공장건설, 자금운용, 관세 등을 중심으로)
- 일시 : 10월 16일(금) 12:00~17:00
- 장소 : 리츠칼튼호텔 그랜드 볼룸
- 문의 : IM3본부 손원식 S.Manager
(02-2112-7853 / wonsikson@kr.kpmg.com)

▶ 제4회 삼정KPMG Alumni Night

- 주제 : 삼정KPMG Alumni-임직원 화합의 장
- 일시 : 11월 19일(목) 19:00
- 장소 : 서울 소공동 The Plaza 호텔, 지하 1층 그랜드볼룸
- 문의 : 마케팅본부 임해민 S.Manager
(02-2112-7591 / hairminlim@kr.kpmg.com)

‘Our Higher Purpos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세상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 통찰력, 전문성 그리고 폭넓은 관점을 통해 확실성을 창조해내는 신뢰할만한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삼성KPMG는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통해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뤄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업(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인도합니다.

삼성KPMG는 항상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언제나 명확한 목적(Purpose)을 갖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신뢰를 부여하고(Inspiring Confidence),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며(Empowering Change),
이를 통해 삼성KPMG와 세상을 더욱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아래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hannel 편집부에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112-7567